

한국어 어휘와 한국인의 사고 교육

조 현 용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1. 우리말에는 우리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말에는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가 담겨 있다. 우리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참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에서 언어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도 언어가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말이 통하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과정일 뿐이지 목적일 수 없다.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며, 또 하나의 세계를 체험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2. 우리말을 보는 방법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보는 방법을 묻는다면 수 없이 많은 원리나 규칙을 이야기할 것이다. 언어는 매우 과학적인 대상이어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각각의 의의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어휘를 바라보는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어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어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말이 더 잘 보이게 될 것이다.

2.1 명사와 용언

‘신다’는 ‘신 + 다’의 구조로 되어 있다. 명사가 용언으로 된 것이다. 우리말에는 이러한 구성이 많다. 반대로 동사나 형용사를 잘 살펴보면 관계있는 명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예들을 보자.

- ㄱ. 배다
- ㄴ. 품다
- ㄷ. 빚다
- ㄹ. 달리다
- ㅁ. 밟다
- ㅂ. 푸르다
- ㅅ. 붉다
- ㅇ. 비추다
- ㅈ. 비치다

2.2 모음의 교체

우리말 단어 만들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방법은 모음을 바꾸는 것이다. 모음을 바꾸어서 원래의 의미를 나누거나 약간 다른 의미로 세분화한다. 예들을 보자.

- ㄱ. 나 - 너 - 누(누구/누가)
- ㄴ. 남 - 놈 - 님
- ㄷ. 놓다 - 낳다 - 넣다
- ㄹ. 늙다 - 낡다
- ㅁ. 맑다 - 뭍다
- ㅂ. 머리 - 마리
- ㅅ. 붉다 - 밝다
- ㅇ. 살(나이) - 설
- ㅈ. 썩다 - 삭다
- ㅊ. 앓다 - 었다
- ㅋ. 작다 - 적다
- ㅌ. 훑다 - 훑다

3. 깨달음을 주는 우리말

- ① 잘
- ② 사랑하다
- ③ 나쁘다
- ④ 싫다/슬프다
- ⑤ 한심하다
- ⑥ 바보
- ⑦ 돌보다

4.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우리말

- ① 버릇없다
- ② 국물도 없다
- ③ 손가락을 놓다
- ④ 시원하다
- ⑤ 점잖다

- ⑥ 재미없을 줄 알아!
- ⑦ 구수하다

5. 한국어 교수법에서 고려할 점

언어 교육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최상의 교수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교수법은 없다.' 라는 말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조건이 다양한 상태에서 어느 한 교수법을 최상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 접근에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것이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수정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법에 관한 논의 자체가 큰 의의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최상의 교수법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최선의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언어 교육이라는 보편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어떤 접근이 있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강의는 한국어 교육이 국어 교육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한국어 교육이 외국어 교육과는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5.1. 사용 빈도에 주목한다.

학습자가 많이 사용할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말뭉치의 빈도가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한 사용 빈도가 중요하다. 즉,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필요한 사용 빈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뭉치도 최근의 자료가 중심이 된 것이어야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학습 초기부터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나 전화번호를 묻는 것에 더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 읽기에 관한 내용이 교재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단계나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한국의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도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파생어를 교육할 때 체계성을 고려하여 빈도수가 낮은 접사(예: -장이, -쟁이)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학습자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장이’가 붙는 어휘는 기술자의 의미가 덧붙게 되는데, ‘대장장이, 미장이’ 등 아주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에만 사용되어 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

겹받침(ㄱ/ㄷ/ㄹ/ㅂ/ㅅ/ㅈ)의 교육도 마찬가지로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재에 따라 자모 교육 시에 모든 겹받침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뿔, 뉘, 삶, 외곶, 훗다, 읊다’와 같은 어휘를 처음부터 모두 교육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단어가 나올 때 해당 겹받침을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5.2. 표현과 이해를 분리하여 생각한다.

표현과 이해는 다르다는 것은 언어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를 교재에 반영하는 것에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읽기, 듣기) 교육에 사용되는 어휘나 문법이 표현(쓰기, 말하기) 교육에 사용되는 어휘나 문법에 비해 비교적 난이도가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해와 표현에 사용되는 어휘, 문법의 정도를 구분하여 교재에 실는 것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시험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한 어휘나 문법은 이해 평가의 대상으로, 표현을 중심으로 교육한 어휘나 문법은 표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휘의 경우에 이해를 위주로 가르쳐야 할 것과 표현을 위주로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한 구별도 필요하다. 어려운 속담이나 관용어, 의성·의태어의 경우는 이해 차원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비속어나 방언 등과 같은 것은 이해를 위주로 교육하여야 한다. 후에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면 될 것이다.

5.3. 규범성과 함께 자연스러움도 중요하다.

오류는 외국어를 배울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화자들 사이에서도 오류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어 교육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언어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권위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변화를 타락이라고 보고 규범화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증들 사이에서 이러한 오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별다른 주저함 없이 이러한 오류를 일상생활에 사용한다. 글쓰기에서는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구어 사용 시에는 오류에 대한 저항감이 적은 듯하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주된 목표로 하는 요즘 교수법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어상의 오류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할 상황만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국어 교육과는 달리 ‘맞는가, 틀리는가’ 보다 ‘자연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것은 그러한 측면도 가르쳐야 한다. 특히 재외 동포의 경우에는 한국인이 자주 하는 오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단, 표준어나 표준 발음에 관해서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표준 발음을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자주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어 교사가

표준 발음을 알아야 하는 문제와 교육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에는 표준 발음과 함께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도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5.4.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교재 구성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문법 및 발음, 어휘 등의 교육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더욱 필요하다. 비슷한 발음, 비슷한 어휘나 문법 요소 등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문법 요소를 문법 체계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함께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 초기에 문자와 발음을 배우게 되는데 지나치게 복잡하게 발음을 구별하게 하는 것은 학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ㅈ/ㅊ’나 ‘ㅞ/ㅟ/ㅠ’의 구별을 자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거라, 너라’ 불규칙의 교육이나 ‘하계체, 하오체’와 같은 상대 높임법의 교육도 전체 체계를 제시하기보다는 필요한 체계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체계를 단순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어휘 높임의 경우에도 단순화시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복잡한 높임의 체계 때문에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밥/식사/진지’, ‘이름/성함/함자’, ‘나이/연세/춘추’ 등을 처음부터 3단계로 제시하지 않고 우선 2단계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규칙을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사실 한국어 에서 높임의 단계는 급격히 2단계로 변화하고 있다. 격식체는 ‘해라체와 합쇼체’로 주로 쓰이며, 어휘 높임도 주로 ‘밥/식사, 이름/성함, 나이/연세’ 등 2단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

5.5. 한국인만의 문화

‘한국인만’이라는 고유성, 독창성을 찾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과 비슷하고, 일본과 비슷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양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문화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흐르는 것이고, 퍼져나가는 것이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다. 나를 남과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 짓는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손가락으로 대표되는 식생활 문화
(손가락과 젓가락을 쓰는 문화)
- ② 온돌로 대표되는 주거문화 (온돌은 전파되고 있다)
- ③ 복두칠성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종교문화
(우리의 고향은?)
- ④ 한국어 속의 언어문화 (존대법이 발달한 언어)
- ⑤ 신체언어 속에 나타난 문화
(삿대질을 하고, 무릎을 치고, 땅을 치는 사람들.
아이를 업고, 물건을 이는 아낙들)

조현용 (516-282-5736/ iiejhy@khu.ac.kr)
 경희대학교 교수
 현재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한국학 연구소 방문교수
 <저서>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박이정)
 한국어 교육의 실제(유씨엘)
 우리말 깨달음 사전(하우)
 우리말로 깨닫다(하우)
 한국인의 신체 언어(소통)
 <공저>
 한국어 발음 교육(한림), 한국어 교육론2(한국문화사),
 한국어 교재 연구(하우)